

환경

네트워크

일본 녹색조달 대상에 9개 품목 추가

일본이 녹색조달 대상에 전자계산기, 토너 및 잉크 카트리지 등 9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환경성이 국가 등 각 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할 품목(특정 조달품목)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했다.

공표된 개정안은 전자계산기, 토너 및 잉크카트리지, 텔레지전 수신기, 직물 블라인드, 절수 기기 등 9개 품목을 특정 조달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현 특정 조달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재질 문구, 종이재질 문구, 복사기, 냉장고, 에어컨 디셔너 등의 기준을 개정토록 했다.

특히, 판단기준 개정안에서는 PC,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7개 제품에 도입된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화학물질 함유정보 표시제도를 반영했다.

공공기관의 특정 조달품목은 지난해 13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 것을 포함해 현재 115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제안된 9개 품목이 모두 포함될 경우 12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홍콩, 환경친화차량에 32억 달러 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도널드 창(Donald Tsang) 홍콩특별행정지구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환경친화차량을 이

용하는 운전자에게 재무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젤 상업용 차량에 대해 전유로(pre-Euro) 차량기준의 차량을 18개월 내 유로(Euro) I이나 3년 내 유로 IV로 바꾸는 데 대해 32억 홍콩달러를 인센티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가용이나 택시, 프랜차이즈 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인센티브는 전유로 차량을 유로 I 차량으로 바꾸는 데 대해 12%의 세제 혜택을 주고, 유로 IV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18% 세금 감면 조치를 해 주는 데 사용된다. 이에 세제 혜택의 범위는 10,000-200,000 홍콩달러가 된다.

전유로 차량의 입자상부유물질과 일산화질소 배출량은 유로 IV 차량보다 각각 30배와 2배 높다. 유로 I의 차량에 있어서는 유로 IV보다 각각 15배, 1.5배 높다.

본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홍콩 내에서 일산화탄소 배출은 10%, 입자상 부유물질은 18%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저배출, 고연비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등록세의 30%를 줄여 주기로 했다. 이에 운전자는 차량당 최고 50,000 홍콩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 EPA 새로운 대기오염 평가 제도 발표

미국 EPA는 지난해 12월 7일, 기존의 미국 국가 대기 성질 기준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시스템을 새

롭게 향상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목적은 기존 NAAQS검증 과정에 효율성을 더하고, 그동안 대기오염 측정에 최적의 과학적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재검토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기정화법 (Clean Air Act)에 의하면 5년을 주기로 모든 대기오염 측정 항목을 검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EPA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대기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최적의 과학 기술을 적용하고 시기적절하며 투명성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기존의 평가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향상 방법을 연구해 왔다. 지난해 2006년 6월 26일 EPA는 워크숍을 통해 앞서 4월에 발표한 NAAQS 리뷰 과정 향상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PA는 청결공기 과학 자문위원회 (CASAC: Clean Air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와의 회의를 통해 CASAC의 제안 사항 역시 재고했다. EPA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새로운 평가방식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기획 : EPA는 모든 대기오염 평가 항목을 검토한 후 차기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안을 마련한다. 이 정책안은 세부일정, 평가과정 및 평가 기준을 포함할 것이며 CASAC의 검증도 거친다.

▶과학적 통합 평가 방식 도입 : EPA는 정책에 적절한 과학 방식을 더욱 간단 명료하게 평가, 통합, 복합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리스크 (risk) 와 노출 (exposure) 평가 방식도 포함된다. CASAC과

일반시민이 새로운 과학적 통합 평가방식에 관한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공한다.

▶리스크/노출 평가 : EPA는 과학적 통합 평가와 리스크/노출 평가에 좀더 확실한 연계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리스크와 노출에 대한 대기성질 파악 결과에 과학 정보가 최대한 그리고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를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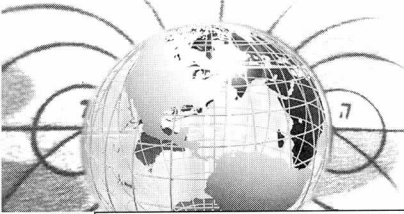
▶정책평가/정책입안 : EPA의 준비된 보고서는 수정된 정책 평가 자료로 대체된다. 이 자료는 EPA의 과학적 평가와 판단에 입각하여 최종 수정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평가는 EPA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고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시된 법률제정의 사전 통고 (ANPRM)로서 등록된다. 이와 같은 ANPRM제도는 CASAC와 일반시민에게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안을 입법 이전에 사전 검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해양생물 종다양성 보호센터 오픈

중국이 남동부 해안도시인 푸잔(Fujian)성 샤멘(Xiamen)시에 해양 종다양성보호에 관한 훈련·정보센터를 열었다.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첸 란징(Chen Lianzeng) 차관은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해양생물의 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첸 차관은 본 센터가 중국 남부 해안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에 관한 관리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은 “본 센터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중국의 각급 정부 및 시민들에게 종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국의 신진 모형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국가 보호 하에 30개의 해양보호 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보호구역은 60개가 넘는다.

중국은 1992년 유엔 종다양성 컨벤션(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조인국이 됐다.

호주, 주요 습지 보호 강화

호주 환경유적부 장관 이안 캠벨(Ian Campbell) 상원의원이 하워드 정권(Howard Government)이 습지 보호를 위해 전례 없는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캠벨 장관은 호주 정부가 호주 강 시스템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물새 서식과 농경의 본거지인 습지대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벨 장관은 “30억 달러 규모의 자연유산 트러스트(Natural Heritage Trust)와 14억 달러 규모의 염도 및 수질을 위한 국가 액션플랜(National Action Plan for Salinity and Water Quality)에서 제공하는 조경 및 수로복원 투자기금에 보태 우리 연방정부는 16억 달러 규모의 물 스마트 호주(Water Smart Australia) 계획에서 기금 중 13억 4,000만 달러를 제공해 왔습니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습지복원계획(NSW Wetland Recovery Plan) 기금은 주의 북쪽에 있는 모리

(Moree) 강 하류의 귀더습지(Gwydir Wetlands) 및 맥과리습지(Macquarie Marshes)의 건강 복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가 얼마나 습지대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습지대들은 세계적으로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곳이며, 동시에 주변의 목축 및 농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본 프로젝트는 습지대 및 물관리에 대한 지식을 고양시키고 물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습지대의 영양 공급을 저해하고 주변 초지를 침범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잡초를 관리하는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물절약 관련 사업도 실시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열린 수로를 파이프프로 연결하거나 물 복구를 위해 마켓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캠벨 장관은 “저는 또 산업, 매니저, 토지소유주 및 커뮤니티 등이 귀더 홍수지대 및 습지대의 환경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 트러스트를 통해 634,000달러 투자를 승인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얻는 지식은 맥과리 습지를 비롯한 다른 주요 습지대에 전해질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인 높은 환경인식, 기후변화는 별로

북유럽 시민들의 환경인식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PA)이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인들은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덴마크인들은 일상생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질문 및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중 82%에 정답을 맞췄다. 그렇지만 몇몇 부문에 있어서는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디젤차와 가솔린차 중 어느 것이 분진오염을 더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 했다(정답을 63%). 73%의 사람들만이 운전을 잘 하면 주행 중 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97%)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 보다 개인적인 의무에 대해 질문할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적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시민사회(시민, 산업, 농업)가 정계 및 정부당국보다 환경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환경지식과 행동 사이의 상관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캠페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함의를 던져 준다.

덴마크 사람들은 기후에 대해서는 지식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에 관한 퀴즈에서

응답자들은 문제 중 59%에 대해 정답을 맞췄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64%의 문제에 정답을 맞췄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환경친화행동 중 60%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방지는 설문자들이 친환경행동을 하는 데 있어 동기가 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호행동을 할 가능성은 나이, 가족형태(아이가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로 덴마크 국민의 기후조사가 실시된 때 기후이슈에 대한 인식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협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수는 44%에서 66%로 상승했다. 가정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3%에서 24%로 상승했다.

요컨대 기후변화나 날씨가상현상 등에 대한 논쟁은 기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사람들은 점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부족했다. 즉 노년층들은 교통에 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